

죽은 땅의 얼굴

『문다』라는 책을 쓴 문선희 작가는 어느 날 무작정 살처분 된 동물들이 묻힌 땅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비게이션을 쫓아갔다가 동물 매몰지에서 물컹거리는 땅을 밟고 모골이 송연해진 경험을 한 작가는 그 후 전국에 살처분된 동물들이 묻힌 땅을 찾아 사진을 찍고 기록합니다. 『문다』는 1/3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 사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흠뻑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벽지같기도 하고 현대 추상미술 같기도 한 이미지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곰팡이로 뒤덮혀 있거나, 기이한 색으로 변색된 식물들이 자라고 있거나, 벌레먹은 듯 구멍이 난 병든 잎사귀 숲이 되었거나 하는 식으로 ‘죽은 땅’이 된 지역의 사진입니다. 물론 가끔 땅을 뚫고 나온 뼈가 나타날 뿐 죽은 동물의 사체가 드러나 있는 사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죽은 표면’들 아래 끔찍하고 처참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렵잖게나마 짐작할 수밖에 없게끔 기이하게 소름 돋는 이미지들입니다. 사진들에는 2321-01, 2312-02, 11800-01, 11800-03, 15000, 73000 등의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숫자가 바로 해당 지역에 묻힌 동물들의 수입니다. 뒤에 있는 숫자는 작가가 그 지역을 방문한 횟수이고요.

‘살처분’이라는 말은 특별한 용어이지만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제역, 감염병, 조류독감 등등의 단어가 같이 떠오르고 감염병에 걸린 동물들을 처리하는 ‘어쩔 수 없는 일’ 정도로 감각됩니다. 그러나 글자의 한자 의미를 잘 들여다보면 이 용어가 얼마나 냉혹한 것인지가 좀 더 직감됩니다. 한자로 바꿔 쓰면 ‘殺處分’이 되니까요. 동물 살처분에 대한 문제성은 사실 꽤 오랜 시간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심각성에 비해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잘 와 닿지 않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장식 축산의 ‘비가시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축산 산업의 전반적인 비가시성의 가장 극단적인 끝에 있는 것이 이 ‘살처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선희 작가의 사진들에 나온 저 숫자만큼의 동물들을 한꺼번에 산 채로 땅에 묻는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일인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처분’이라는 지극히 효율적이고 압축적인 단어를 거쳐 보도되는 기사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격차-제가 스스로 느끼는 감정임에도 불구하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 정부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 발견되면 반경 3Km 이내의 동물들을 집단 살처분하는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처음 2010년 구제역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 확산이 너무나 빠르고 심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야 하는 특단의 조치로 보도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대규모 동물 학살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 논의를 할 시간도 없이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일로 처리되었지요. 그 뒤로도 동물 살처분은 한 번씩 신문지상에 오르내렸고, 비관계자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소 익숙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처분이 동물 감염병의 유일한 관리 방침으로 자리잡으면서 이에 대해 축산농가와 학계는 반복해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비인도적 조치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과연 효과적인 정책이기는 한지 등이 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간 백신의 개발과 도입이 예방대책으로 수립되었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경로와 확산에 대한 과학계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류 수출입 문제, 농가 경제 문제, 관리 인력 문제 등 관련한 갈등과 현실적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할 것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봉책일 수밖에 없는 비인도적

인 동물 집단 살처분이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만도 없으며 게다가 2차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문가들의 동의가 모인 편인 것 같습니다. 동물 사체에서 나온 침출수가 상수도를 오염시키고 있는 실태들은 종종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 문제의 한 가운데에 '공장식 축산'이 놓여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동물들의 밀집도가 감염 확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더불어 비인도적인 축산 환경 자체가 동물들을 '고기상품'으로 만드는 가운데 면역에 취약한 개체로 키우고 있다는 것이죠. 동물복지 농가들에서 감염병 발견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주장들은 동물복지를 포함시켜 축산 생태계 자체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곤 합니다.

사람들은 동물권에 대한 견해를 인간사 안에서도 처참한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동물들의 권리 옹호를 맥락없이 떼어내어 윤리적 행동을 명령하는 목소리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활용하기 위해 키우는 동물의 감염과 살처분 관리는 인간의 식량 생산 증대를 위해 생산-유통-소비 구조를 가진 축산업의 순환 고리의 한 토막으로 인간의 인위적 개입에 큰 책임을 물어야 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을 이 정도로 도구화해서 생각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산업의 전체적 구조가 최종 소비자들에게는 항상 가려져 있는 양상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벌써 잊혀졌지만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새로운 인수 공통 감염 바이러스의 출현에 큰 공포감을 느꼈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동물의 서식지를 얼마나 파고들어갔는지를 보여준 결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류를 각성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많았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도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혹은 초기의 강력한 락다운으로 유통이 막혔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축산 농가의 동물들이 살처분 되기도 했었습니다. 조금씩 팬데믹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기존 시스템의 변화와 관련해서 복잡한 심경해 처해있는 것 같습니다. 파리협정 이후 가장 주목을 받은 글래스고 기후 회의는 환경재난과 기후위기를 위한 명확한 성과를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큰 기대를 갖기 어렵게 하는 소식이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대규모의 인식 변화가 일어난 것도 과거에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일이기도 합니다.